

10명중 6명 이상 새정치 지지... 새누리·진보당 지지율 하락

<6·4 지방선거 득표율 대비>

광주일보·리서치뷰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정당 지지도 새정치 지지율 50~60대가 젊은층보다 높아

수원·첨단·신가지구 등 신도심이 밀집한 광주 광산(을) 지역민 10명중 6명 이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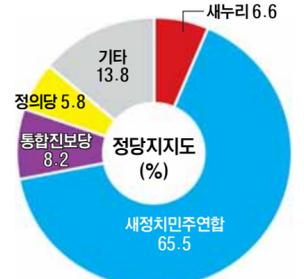
정당지지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5.5%의 지지를 받아 독주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8.2% ▲새누리당 6.6% ▲정의당 5.8%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3.8%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5.5%의 지지를 받아 독주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8.2% ▲새누리당 6.6% ▲정의당 5.8%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3.8%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계층에서 60%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지난 6·4 지방선거 광산구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정당 득표율(69.0%)에 비해 3.5%p 하락했다.

새누리당(7.4% → 6.6%)과 통합진보당(16.4% → 8.2%)도 지방선거 득표율보다 하락한 가운데 정의당(4.6% → 5.8%)만 1.2%p 소폭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경우 남성이 9.4%, 여성이 3.9%로 남성의 호감도가 훨씬 컸다. 또 새누리당 지지자를 연령별로는 살펴볼 때 20대 이하(7.0%), 30대(8.4%), 50대(6.2%), 60대(8.7%)는 6~8%대를 기록했으나 40대는 4.3%에 그쳐 상대적으로 열악



한 지지율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는 20대 이하(63.6%)와 30대(63.7%)만 63%대였고 40대(68.0%), 50대(66.9%), 60대 이상(65.2%)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전략공천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허동준 동장을 지역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월 광주 광산구를 거주 만19세 이상 유선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ARS(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1590명(남성은 1010명, 여성은

유선전화 가입자 1000명 대상 임의 전화걸기 방식 진행

580명)을 무작위로 표집한 후 지난 6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성별·연령별·광역의원선거구별 비례할당 후 1000명의 표본에 맞춰 가중치를 부여했다.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0명 표본의 구성은 연령대별로 19~20대 188명(18.8%), 30대 274명(27.4%), 40대 291명(29.1%), 50대 143명(14.3%), 60대 104명(10.4%)이었고, 성별로는 남성 493명(49.3%), 여성 507명(50.7%), 광역의원선거구별로 제3선거구 520명(52.0%), 제4선거구 480명(48.0%) 등으로 집계됐다. 응답률은 2.9%(총 전화연결수 5만5558명)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포인트다.

기동민, 새정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수용할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서울 동작을(乙)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공천 받은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고심 끝에 당의 결정을 수락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7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내일(8일) 오전 기동민 부시장이 전략공천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부시장 측은 “기동민 부시장은 8일 ‘전략공천’에 대한 수락 여부를 8일에는 결정해줘야 당 지도부에 대한 ‘도리’라며 “애초는

운동권 ‘20년 동지’인 허동준 전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자 한때 ‘공천장 반납’을 검토했으나 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 공천파동’으로 촉발된 재·보선 공천 갈등이 수습이나, 확산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러나 동작을 문제가 가까스로 수습되더라도 텃밭인 광주 광산(을) 등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애초 자신이 공천을 신청했던 광주에 머물던 기동민 부시장은 전날 밤 상경, 당내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의견을 교환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동민 부시장은 허 전 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486 인사들이 기동민 부시장과 허 전 위원장 간에 중재는 시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5일째 당 대표실에서 농성 중인 허 전 위원장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장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당내 원외위원장 30여명도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이나 나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정의 달인 vs 3선 군수 출신

오늘 경선...이계호·이석형 새정치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

7·30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은 이계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애초 김연환 전 전남도의원도 경선 후보로 나서 선호투표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김 예비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이계호 전 부지사는 지난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기획관, 여수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F1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도학숙 설립과 농어촌특례입학제 도입, 국제행사 유치 등의 성과를 내 왔다.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처음 만든 ▲‘생활행정’은 ‘생활정치’로 구체화하고 ▲‘책임 행정’은 ‘책임의정’으로 ▲‘정도(正道) 행정’은 ‘대의(大義)와 감동의 정치’로 변화를 예고했다. 또

한, 지역 발전과 관련, 농림·축산·수산업 살리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복지정책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지역 SOC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19대 총선 때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의 당내 공천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선거구가 갑작스럽게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바뀌면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석형 전 군수는 3선 군수 출신으로, ‘함평 나비축제’를 흥행시키며 ‘나비군수’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는 내리 군수 3선을 한 뒤 전남지사 선거에 두차례 도전장을 던졌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 전 군수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 들었지만, 이낙연 당선인과 주승용 사무총장간 양강 구도에

말려 3위에 머물렀다. 앞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불공정 경선방식을 이유로 후보등록을 거부하면서 경선이 무산돼 ‘경선 도 해보지 못하고 분투를 삼켰다. 이 전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권재창출에 앞장 서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진정성있고 살아 있는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담양, 이 전 군수는 함평 출신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름	이계호(55)	이석형(55)
경력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선 2·3·4기 함평군수 전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정당준비 공동위원장

천정배 “당 지도부 광주시민 선택권 존중해야”

“광산을 경선 길 열려있어”

7·30 광주 광산구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시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당이 전략공천을 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선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이어 “당 지도부가 광산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전략지

역은 단지 전략공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는 지역이라는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결정한다면 경선의 길이 열려 있고, 순리대로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하지만 내 정체성의 일부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벗어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2년 뒤 총선을 기다릴 수 있지만, DJ 정신을 계승해 호남정치를 복

원하고 강한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고 정권교체에 기여하고 싶어 이번 보궐선거에 나신 것”이라며 “특히 호남에서 나서려는 것은 호남정치 복원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왕따 수준의 비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절대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자기 개혁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정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전화 | 062) 228-1199

주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상당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람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떠나세요!

무안출발 연길(백두산)전세기

6월 27일(금)~8월 18일(월) 매주 월요일(4박 5일)/금요일(3박 4일)

출발일	가격
7/14, 7/21	699,000원 ~
매주 금요일	999,000원 ~

무안출발 마카오(홍콩) 전세기

7월 27일~8월 7일 매주 일요일(3박 5일)/목요일(2박 4일)

출발일	가격
7월 27일	949,000원 ~
8월 7일	999,000원 ~

하니문너를 위한 지역별 출발 하니문 상품

출발지	가격
푸켓 6일	1,250,000원 ~
발리 6일	1,799,000원 ~
하와이(오아후) 6/7일	1,950,000원 ~
시드니 & 골드코스트 6/7일	2,390,000원 ~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하니문 상담회

HAPPY HONEYMOON GUIDANCE

방문 EVENT!
하니문 푸드 카페 무료 음료를 증정
달 여행용 트래블백 제공

예약 EVENT!
하니문 생당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
달 "롯데면세점 5만원 선불카드 교환권" 제공 (14년 12월 31일까지 출발고객 한정)
셋 지역별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 진세계 항공권/호텔 여행
- 문화공연 예매 하나투어 Ticket
- 쇼핑 여행용품(화이트프라이빗)이벤트 특선 상품, 가전, 식품(2점)
- 생활서비스 모바일 상품권(카드/와시/주유/영화/카페 등)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가(상품)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